계율 연구·율사 양성 '법령' 세운다

조계종 교육원 '율원령' 제정키로…원장 · 교수 자격 · 교육과정 등 명문화

조계종 율원의 설립과 인가, 운영 등을 담은 '율원령'이 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5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율원장 회의를 열고 율원령 제정안을 검토 · 심의했다.

현재 율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교육법에 부분적으로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계종 교육제도가 정착되면서 몇 년 전부터 율원의 행정원칙이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증가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율원 학인정원은 학년당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전체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율원은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둔다. 총림 율원장은 총림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하고 그 외 율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교수는 율원장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인 자로 전계를 받아야 하며, 율원에서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 있어야 한다.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인 자로 율원에서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이수하거나, 율원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율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율원에는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인정원, 청규 제정 및 개정, 율원 폐지 등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율원이 위치한 사찰의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율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며,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율원은 율원장, 율감, 교수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둔다. 교무회의에서는 학인선발, 학사운영, 학인상벌 등을 심의한다.

수업은 학기당 16주 이상 해야 한다. 수업 연한은 전문과정 2년으로 한다. 전문과정을 마친 경우 연구과정 3년을 둘 수 있다.

2년간 계속 학인 정원(휴학 중인 학인 포함)이 반수 이하일 때, 율원의 시설이 영에 정한 기준 이하여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등은 등록취소한다.

이상봉 교육원 교육팀장은 "율원령은 교육원 회의와 종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TIP 율원이란 율장의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청정지계의 가풍을 확립하는 율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율원은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스님들의 기강을 세우고 올바른 율법에 의해 구족계를 받게 하기 위해 양산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설립함으로써 개설됐다. 현재 조계종에는 송광, 영산, 해인, 고불, 영축, 청암, 금강율원 등 총 7개 율원이 있다.

끝 안보이는 '관음사 문제'…초선의원들 "특단 조치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초선의원스님들이 제주 관음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 광고를 통해서다. 초선의원스님들이 종단 현안에 공동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화 스님을 비롯한 초선의원스님 23명은 '제23교구본사 관음사와 제주불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주지직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관음사의 일부 스님과 신도들에게 속히 종단의 합법적인 절차와 명령에 따라 관음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관음사의 점거가 길어진다면, 중앙종회에서 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님들은 총무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고 처벌함으로써 종헌종법의 신성함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 상좌인 선일 스님도 은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글을 5월 7일 발표했다. 스님은 성명서에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은사스님의 조계종에 대한 정체성에 회의를 품게 됐다"며 "총무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제주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9일 호소문을 통해 "중원스님은 하루라도 빨리 수행자의 초심으로 돌아가 걸망 하나 들고 제주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도 9일 기자회견에서 "관음사 종무행정 및 관음사 종무소를 즉시 인수인계하고 일체 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형태로도 관음사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불교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기자회견 참석자와 관련 "관음사와 무관한 스님과 신도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혜자)는 7일 前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과 前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이 제기한 '주지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소청 내용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또 관음사 주지를 선출한 다음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다시 품신하도록 총무원에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총지종 종조설법 CD · 테이프 보급

탄신 100주년 사업 일환

총지종(통리원장 원송)은 5월 2일 종조탄신 100주년, 창종 35주년 기념으로 '모든 것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라는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를 제작 배포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는 편안한 배경음악에 성우 이규항 씨가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다.

총지종 총무부장 경원 정사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이 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라며 "CD와 테이프를 활용해 명상이나 요가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 552-1080~3 김원우 기자

중앙종회 운영규칙 '손질' 개정 소위원회 발족

조계종 중앙종회 운영 규칙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상운)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중앙종회 운영 규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위원으로 덕문(위원장), 일문, 진화, 선문, 일법 스님을 선출했다.

소위는 올 9월 임시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중앙종회 의사일정에 관한 규칙 △중앙종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종회의원 여비지급 규정 △중앙종회 관련 서식 등의 규칙을 제 · 개정할 방침이다.

총무분과위는 또 사찰등급조정을 규정대로 시행한 뒤 결과를 차기 총무분과위 회의에 보고토록 총무원 총무부에 공문을 보내도록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 주지에 정우 스님

축산문도회서 추천

영축총림 통도사 축산문도회(회장 초우)는 5월 8일 통도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통도사 주지로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주지 · 사진)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이날 회의에는 150여명의 문도들이 참석했으며, 같이 후보로 거론됐던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산옹 스님은 회의 서두에서 "산중이 안정되면 언제든지 주지직을 물러날 계획이었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축산문도회측은 "지난 3월 6일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차기 통도사 주지를 축산문도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승가대 교직자 해외연수

전국 승가대학(강원) 교직자 직무연수가 최초로 해외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제7회 전국 승가대학 교직자 직무연수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불광산사와 중대선사, 법고산사에서 진행된다"고 5월 10일 밝혔다.

교직자들은 불광산사를 방문해 승가교육체계를 살펴보고, 불학원 교직자 스님들과 양국의 승가교육체계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아무도 못쓴다

조계종, 문장 ·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승소

앞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도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라는 명칭 자체, 조계종 문장과 유사한 문장, 문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라는 명칭의 결합 모두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5월 4일 모두 승소(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는 2002년 9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했고, 승려증에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명기했다. 조계종 문장마저 음각과 양각을 바꿔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혼동을 일으킨 신도들이 조계종에 항의하는 사례가 생기자 조계종은 2007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와 총무원장,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했다.

조계종은 "종단명칭과 문장을 내용으로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명칭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인 관리와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는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에 대해 형사고발조치를 취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계속 도용할 경우 사용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해 적극 동참"

지관 스님, 김종민 장관 만나 기원등 달기 등 '약속'

조계종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김종민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올 연등축제 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꽃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

이에 지관 스님은 흔쾌히 허락하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때 각 사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등을 달도록 공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지관 스님은 또 "지난 4월 조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법회가 열렸지만, 부처님오신날 후 종단 차원에서 기원법회를 여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문화재관람료나 전통사찰불사 이중규제 등 종단 현안에 대해 정부측과 협의 중에 있다"며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종민 장관은 "몇 가지 보고받았지만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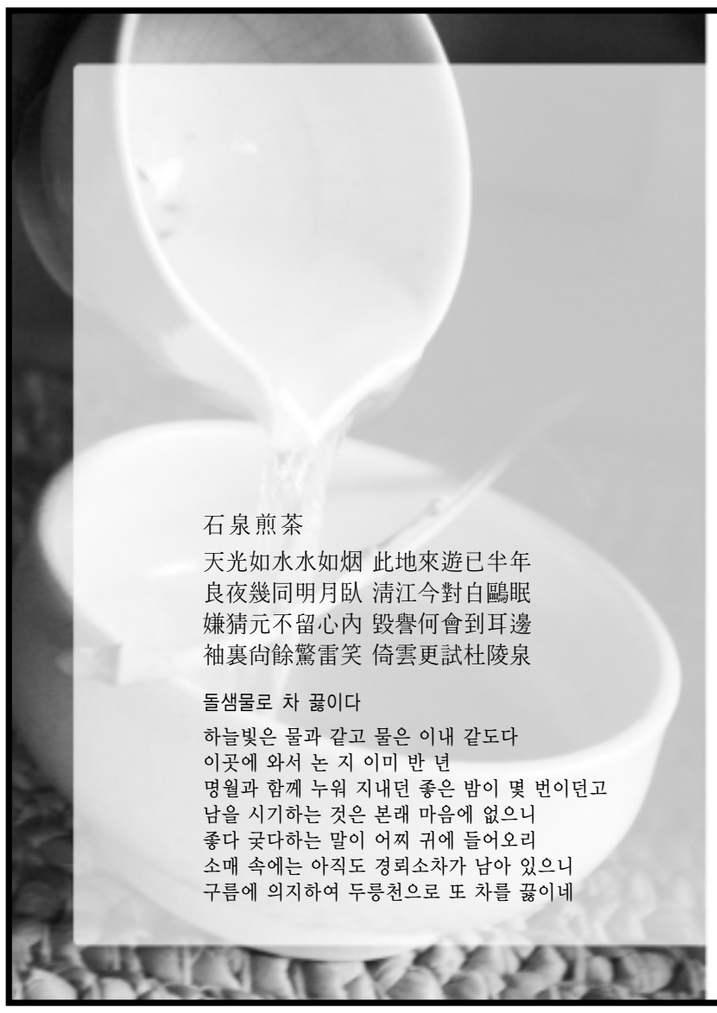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탄생 제221주년 기념

초의선사탄생문화제

다도의 이론과 실제를 생활화하신
한국의 다성(茶聖)초의선사(艸衣禪師)
우리 전통차 문화를 꽃피운 초의선사의 정신문화를
널리 선양하고 차문화의 저변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다인 및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행 사 개 요

◆일 시 : 첫째날 2007. 5.19(토) 14:00 ~ 17:00
둘째날 2007. 5.20(일) 10:00 ~ 17:00
◆장 소 : 초의선사탄생지 경내 및 다 교육관 주변
◆주 최 : 무안군
◆주 관 :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집행위원회
◆문 의 : 사단법인 초의학술문화원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943번지
전화 061)285-0922 / 팩스 061)285-0304

행사 프로그램 일정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첫째날 : 5월 19일(토)		
초의선사 학술세미나	14:00~16:00	다 교육관
초의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16:00~17:00	다 교육관
둘째날 : 5월 20일(일)		
농악놀이	09:00~09:40	행사장 주변
어린이 행다시연	10:00~11:30	다 교육관
초의선사 헌다의식	11:00~11:30	다성사
천인헌다제	11:30~17:00	다성사
차문화 도서전시회	12:30~13:30	다 교육관 앞
초의선사 동상 헌다제	13:00~14:00	초의선사동상 앞
전통행다법 시연	14:00~16:00	다 교육관
차와 소리의 만남(국악공연)	16:00~17:00	다 교육관
상설 · 부대행사 5/19(토)~5/20(일)		
세계각국의 차 전시	10:00~17:00	용호백로정 주변
茶 음식전시 및 체험	10:00~17:00	명선관 주변
전통한과 전시 및 체험	10:00~17:00	명선관 주변
다식 전시 및 체험	10:00~17:00	명선관 주변
차떡 전시 및 체험	10:00~17:00	명선관 주변
떡차 만들기	10:00~17:00	명선관 주변
차상보 전시회	10:00~17:00	산책로
차문화 사진 전시회	10:00~17:00	명선관 주변
초의차 제다법 시연다	10:00~17:00	교육관 주변
초의선사 행다법 시연다	10:00~17:00	교육관 주변
차모음 전시 및 시음회	10:00~17:00	명선관 주변
자기나무 심기	10:00~17:00	명선관 주변
다인결계수인 만들기	10:00~17:00	명선관 주변
무료차 시음회	10:00~17:00	명선관 주변
초의등불 밝히기	10:00~17:00	행사장 주변